

# 박빙의 명승부, 가을의 전설 만들었다

되돌아본 한국시리즈

## 1차전 큰형님 이종범 3타점 12년만의 우승 감 잡아

KIA 타이거즈가 통산 10번째 우승을 향해 상대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경기. 최고참 이종범이 혼자 3타점을 올리는 눈부신 활약을 펼쳐 5-3으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로페즈와 카도쿠라, 외국인투수끼리 선발대결은 초반 팽팽한 접전이었다. 올 시즌 14승을 거둔 로페즈는 145km 안팎의 빠른볼과 슬라이더, 싱커를 섞어 던지며 다승 공동 1위다운 투구를 보였고 카도쿠라는 145km 안팎의 직구와 낙차 큰 포크볼로 KIA 타선을 요리했다. 이날 승부처는 8회, 3-3으로 팽팽한 접전을 펼쳐던 8회말 KIA가 1사 2-3루의 기회

를 만들었다. 타석에 들어선 이종범은 SK 5번째 투수 정대현을 상대로 깨끗한 우전안타를 날려 KIA가 4-3으로 다시 앞섰고 김상훈도 우전안타로 뒤를 받쳐 5-3으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9회에는 KIA 마무리 유동훈이 등판해 삼자 범퇴로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1차전 (16일·광주)

SK	0	0	1	1	0	0	1	0	0	-	3
KIA	0	0	0	0	1	0	2	0	2	x	-

▲승리투수 = 로페즈  
▲패전투수 = 이승호 ▲MVP = 이종범

## 2차전 에이스 윤석민 명품 체인지업 2연승 낚아

막강 선발진을 앞세운 KIA가 2연승 행진을 펼치며 통산 10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KIA는 선발 윤석민의 호투속에 최희섭이 2타점을 올려 2-1로 짜릿한 승리를 낚았다. 윤석민과 송은범이 선발 대결을 벌인 가운데 경기 흐름은 전날 1차전과 비슷한 양



상이었다. SK는 1회 1사 1,2루, 2회 2사 1,2루 등 초반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한 반면 KIA는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보였다. 3회까지 SK 선발 송은범의 투구에 눌러 퍼펙트를 당했던 KIA 타선은 4회말 귀중한 선취점을 올렸다. 시즌 막판 어깨 부상으로 우려를 자아냈던 KIA의 토종 에이스 윤석민은 7이닝동안 최고시속 147km의 빠른 직구와 낙차 큰 슬라이더, 명품 체인지업을 적절히 섞어 던져 SK 타선을 산발 7안타 무실점으로 요리했다.

■2차전 (17일·광주)

SK	0	0	0	0	0	0	1	-	1
KIA	0	0	0	1	0	1	0	x	-

▲승리투수 = 윤석민  
▲패전투수 = 송은범 ▲MVP = 윤석민

## 3차전 박정권 맹타 SK 홈 인천서 '반격의 1승'

먼저 두 관을 내준 비룡 군단이 안방에서 반격에 나서며 한숨을 돌렸다. SK는 '플레이오프 MVP' 박정권이 2점 홈런을 포함해 4안타 4타점을 올리고 선발 게리 클로버가 4와 3루의 2이닝 무안타 호투를 펼친 데 힘입어 11-6으로 승리했다. 연승 무드를 타고 인천에 상륙한 KIA는 타선이 내내 침묵하다 막판에야 터진 게 아쉬웠다. 클로버는 3회까지 타자 9명을 삼진 4개를 포함해 퍼펙트로 묶었다. SK의 주인공은 '천하장사' 박정권이었다. 박정권은 무사 1루에서 구본슨의 5구째 136km짜리 컷패스트볼이 가운데로 떨어

어지자 힘껏 밀어쳐 왼쪽 펜스를 넘겨버렸다. KIA 막강 마운드를 이끌어온 구본슨은 이 한방에 나가떨어졌다. 2이닝 4실점으로 조기 강판. SK는 5회 안타 3개와 볼넷,사구 3개를 묶어 4점을 쓸어들려 승부를 갈랐다.



■3차전 (19일·인천)

KIA	0	0	0	0	0	1	3	2	-	6
SK	1	1	2	0	4	0	3	x	-	11

▲승리투수 = 이승호  
▲패전투수 = 구본슨 ▲MVP = 박정권

## 4차전 무심코 던진 양현종 실투 '승부 원점으로'

SK 박재홍(36)이 선제 투런포를 터뜨리며 베테랑의 역할을 확실히 해냈다. 0-0으로 맞서던 2회말 2사 후 정상호가 SK 타자로는 처음으로 양현종에게 볼넷을 얻어 출루했다. 타석에는 그동안 한국시리즈에서 침묵했던 박재홍이 들어섰다.



양현종은 볼 세 개를 연이여 던졌지만 박재홍은 자신이 원하는 공이 아니라는 듯 배트를 내지 않고 끈기있게 기다렸다. 박재홍은 양현종의 시속 144km짜리 직구가 높게 들어오자 볼 카운트 0-3에서 망설임 없이 매섭게 방망이를 돌렸다. 공은 배트 중간에 정확히 맞고 좌측 펜스를 살짝 넘어갔다. 초반 뛰어난 구위를 보였던 양현종이 무심코 던진 실투를 박재홍이 놓치고 않고 풀스wing으로 받아쳐 주도권을 잡은 것이다.

■4차전 (20일·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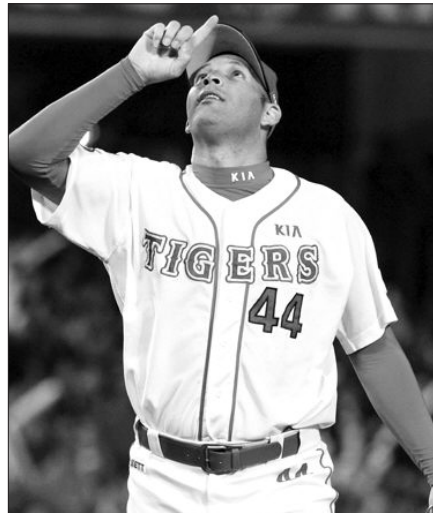
KIA	0	0	0	0	1	0	0	2	-	3
SK	0	2	0	1	0	1	0	x	-	4

▲승리투수 = 재병용  
▲패전투수 = 양현종 ▲MVP = 박재홍

## 5차전 로페즈 완봉 역투·이용규 개구리 번트 승리 예감

'호랑이 군단'이 대망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1승만을 남겼다. KIA는 선발 로페즈의 눈부신 완봉 역투와 찬스에서 확실하게 점수를 뽑는 집중력을 앞세워 3-0으로 완승. 3승2패로 앞서 나갔다. 로페즈와 카도쿠라, 외국인 투수끼리 선발 대결은 중반까지 퍼 말리는 투수전이였다. 1차전에서 맞대결을 펼쳤던 둘은 오른손 정통과 투수답게 140km 중반을 웃도는 빠른 볼과 예리한 변화구를 앞세워 시즌 때보다 더 위력적인 투구를 보였다. 특히 로페즈는 타자 앞에서 떨어지는 싱커를 앞세워 9이닝 동안 4안타와 사사구 3개만 허용했고

삼진 6개를 뽑으며 무실점으로 막아 경기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KIA는 3회말 1사 1,3루의 기회를 만들었다. 타석에 나선 이용규는 볼카운트 1-1에서 3구째에 개구리 점프처럼 뛰어올라 기습적인 스윙즈번트를 성공시켜 3루 주자를 불러들이는데 성공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5차전 (22일·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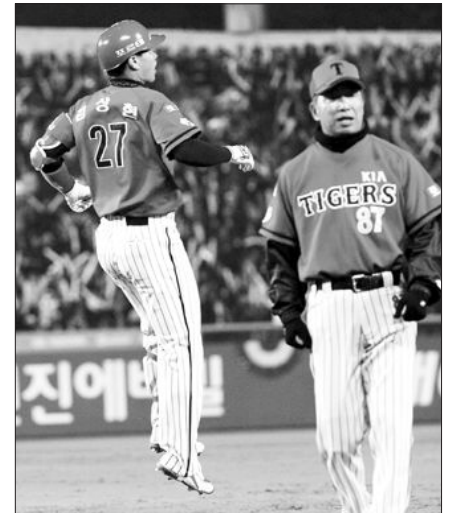
SK	0	0	0	0	0	0	0	-	0
KIA	0	0	1	0	0	2	0	x	-

▲승리투수 = 로페즈  
▲패전투수 = 카도쿠라 ▲MVP = 로페즈

## 6차전 SK 무서운 투혼에 KIA 막판 추격 물거품

포스트시즌 사상 처음으로 감독 퇴장 사태를 겪었던 SK가 무서운 투혼을 발휘했다. SK는 선발 송은범의 호투 속에 베테랑이 호준의 솔로포와 찬스에서 보내기 번트로 1점씩을 보태는 짜내기 야구를 펼쳐 KIA의 막판 추격을 3-2로 힘겹게 따돌렸다. 우안 정통파인 윤석민과 송은범이 2차전

에 이어 6일 만에 재대결을 벌였지만 명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말았다. 2차전에서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던 KIA의 토종 에이스 윤석민은 이날 5이닝 동안 7안타로 3실점한 뒤 몰려나 패전의 명예를 썼다. 반면 윤석민에게 패했던 송은범은 5이닝을 4안타 무실점으로 처리해 한국시리즈에서 처음 승리투수가 되는 기쁨을 누렸다. 초반 찬스를 살리지 못해 0-3으로 뒤지던 KIA는 8회초 최희섭의 적시타로 추격에 나섰다. 하지만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대오온돌나라 특가전

지금이 온돌참때 구입 최적기입니다

■장소: 광주신세계 지하 1층 행사장 | 문의: 10621-200-1900

베드룸 세트 (1인용, 2인용, 3인용) 특가

라이프 세트 (1인용, 2인용, 3인용) 특가

다이닝 세트 (1인용, 2인용, 3인용) 특가

주방 세트 (1인용, 2인용, 3인용) 특가

OnDolNara

### 건물 옥상 지붕 태양광발전소

일반 부지 대비 전력판매가격 7~8배(매수확장)

그린홈 100% 보급률 달성! 태양광 발전소

허용 전기요금 격차 끝!!!

2011년 10월 26일

010-571-4747

010-206-2881

010-206-2882

010-206-2883

010-206-2884

010-206-2885

010-206-2886

010-206-2887

010-206-2888

010-206-2889

010-206-2890

010-206-2891

010-206-2892

010-206-2893

010-206-2894

010-206-2895

010-206-2896

010-206-2897

010-206-2898

010-206-2899

010-206-2900

010-206-2901

010-206-2902

010-206-2903

010-206-2904

010-206-2905

010-206-2906

010-206-2907

010-206-2908

010-206-2909

010-206-2910

010-206-2911

010-206-2912

010-206-2913

010-206-2914

010-206-2915

010-206-2916

010-206-2917

010-206-2918

010-206-2919

010-206-2920

010-206-2921

010-206-2922

010-206-2923

010-206-2924

010-206-2925

010-206-2926

010-206-2927

010-206-2928

010-206-2929

010-206-2930

010-206-2931

010-206-2932

010-206-2933

010-206-2934

010-206-2935

010-206-2936

010-206-2937

010-206-2938

010-206-2939

010-206-2940

010-206-2941

010-206-2942

010-206-2943

010-206-2944

010-206-2945

010-206-2946

010-206-2947

010-206-2948

010-206-2949

010-206-2950

010-206-2951

010-206-2952

010-206-2953

010-206-2954

010-206-2955

010-206-2956

010-206-2957

010-206-2958

010-206-2959

010-206-2960

010-206-2961

010-206-2962

010-206-2963

010-206-2964

010-206-2965

010-206-2966

010-206-2967

010-206-2968

010-206-2969

010-206-2970

010-206-2971

010-206-2972

010-206-2973

010-206-2974

010-206-2975

010-206-2976

010-206-2977

010-206-2978

010-206-2979

010-206-2980

010-206-2981

010-206-2982

010-206-2983

010-206-2984

010-206-2985

010-206-2986

010-206-2987

010-206-2988

010-206-2989

010-206-2990

010-206-2991

010-206-2992

010-206-2993

010-206-2994

010-206-2995

010-206-2996

010-206-2997

010-206-2998

010-206-2999

010-206-3000